무료급식서 시작된 나눔행…"지역민 하나로"

사하불교연합회 무료급식소, 7월 25일 경로잔치 한마당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25일 낮,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사하불교 무료급식소'엔 200여명 어르신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가수들의 공연도 즐기고, 어르신들이 무대에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이 마이크를 직접 들고 '울고 넘는 박달재'와 '노 젓는 뱃사공'을 이어 부르자 어르신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경로잔치에 마련된 떡과 선물은 회장 혜우 스님을 비롯해 사암연합회 신도회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또한 이날 초대 가수들도 모두 재능기부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민요와 가요무대에 어르신들의 흥겨움은 가실 줄 몰랐다.

회장 혜우 스님은 "장수 사진 촬영, 무료급식 외에도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매년 경로잔치에 일반인들이 함께 봉사하며 어르신들과 어우러지니, 더 아름다운 자리로 발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로잔치는 2005년 '사하불교 무료급식소'를 운영 하던 스님들의 원력으로 처음 시작됐다. 장수 사진(영정사진) 촬영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단 생각에서다. 이후 봉사자와 재능기부 초대가수 등 나눔행을 실천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해마다 발전을 거듭했다.

2005년 무료급식 봉사
스님들 원력으로 시작

200여명 독거노인 참여
'지역 나눔의 장' 발돋움
문화수업 등 사업 계획도

무료급식 봉사자들은 "경로잔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 급식과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7월 25일 사하무료급식소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무료급식소가 없던 시절부터 스님들과 함께 급식봉사를 시작했다"는 문선심(67)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잔치연을 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에 관심을 갖는다. 모두가 '나눔행'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송순옥(66) 씨는 "봉사로 인해 내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면서 "이곳에 오시는 독거노인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혜우 스님은 "무료급식과 잔치연으로 사하사암불교연합회원 뿐 아니라 지역민까지 하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수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울산 구룡사, 사리탑 점안 법회 봉행

높이 10m 자연석으로 조성

한국불교태고종 울산 구룡사(주지 구성)는 7월 24일 구룡사 경내서 사리탑 불사를 회향했다.

구룡사 사리탑은 높이 10m 규모에 자연석이다. 자연석은 울산 문수산 아래 울주군 신청사 건립현장서 나온 것을 이용했다. 특히 방석돌과 기장석, 탑신과 옥개석 등 바위 10개로 이뤄졌으며, 탑신에는 불자들이 사경한 여러 경전과 법품,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 돼 있다. 국내의 자연석 탑 가운데에선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이날 구룡사는 사리탑 불사에 노력을 기울인 공을 인정해 김달줄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장과 홍덕희 석수장에게 공로패를 시상했다.

주지 구성스님은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구룡사 불자들이 모두 하나 같이 힘을 모았다"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생각에 환희심으로 행복해 하는 불자들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이들이 업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태고종 울산 언양 구룡사가 자연석 석탑 점안 법회를 7월 24일 경내에서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만덕사, 제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

7월 23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서

부산 만덕사(주지 금산)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7월 2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서 '제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를 거행했다.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는 2008년 시작됐으며, 독립유공자 1만4247명 및 무명용사 195만 명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다.

행사는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과 류수인 시인의 시 낭송,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추모합창 등 합동분향이 이어졌다.

대회장 금산 스님(만덕사 주지)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오직 구국일념만으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독립군 무명용사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후손들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민족의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종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장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위령들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추모관 건립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만덕사와 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는 7월 23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거행했다.

하성미 기자

보양식으로 어르신 무더위 '탈출'

용호복지관 · 합천 용흥사 등 어르신 대상 후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7월 27일 중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DAY'를 실시,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55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국남부발전(주)(대표이사 윤종근)은 임직원들이 직접 일일 급식봉사에 참여했다.

합천 용흥사(주지 홍제)는 7월 21일 합천군청에 삼계탕 닭 500마리를 합천읍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기탁했다.

주지 홍제 스님은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이웃 간 정도 나누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합천군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8개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다.

한편 용흥사는 지난해도 합천군 쌍책면에 촌닭 100마리를 기탁했으며,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후원과 이웃돕기 성금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참된 행복 위해 자기 긍정 연습할 것"

조원규 교수, 생명나눔 부산본부 '생명존중' 강좌서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 중강당서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자살예방 교육, 장기기증 동참 독려 캠페인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제로 진행된 1부 강연회는 조원규 동아대 교수가 나서 '행복하기 위한 삶의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여유와 긍정적 마음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참된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선 박동범 사무국장이 '생명존중사상 장기기증과 자살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국장은 장기기증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박 국장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돌이켜 봄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존중의 시작점"이라 말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어 여러분의 삶도 더욱 소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목종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서병수 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의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부장 원범 스님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수행이자 자비의 발현"이라며 "10주년을 발판 삼아 더욱 큰 나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생명 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운문사 27회 여름불교학교 '성료'

7월 22~24일… 217명 참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2~24일 제37회 여름불교학교 '링가링가 육도탈출'을 실시했다. 초등학생 217명이 참여한 이번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은 지송 · 원겸 스님의 법고 시연 후 육법공양, 어린이 선서, 발원문, 스님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지 진광스님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운문사서 내 한마음의 주인공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6조로 나뉘어 학인 스님들의 독창적인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2박 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날(24일)엔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이 수계증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